

■ 상록탑

허약하지 않은 사람 되기



윤희원 수업팀 취재부장

점심을 먹고 나른한 기분으로 실시간 수업을 듣던 내 정신이 바짝 들었다. 12월 첫째 주까지 기말 레포트를 제출하기 전, 글의 주제나 구조에 대해 전체 수강생과 일대일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면담 시작은 당장 2주 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망했다'였다. 12월이면 한참 뒤라고 생각했기에, 무슨 주제로 레포트를 써야 할지 고민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내 표정이 너무 심각했는지, 혹은 내 생각을 읽으셨는지, 교수님께서도 당신도 해야 할 일을 미리 시작하는 편은 아니라며 웃으셨다. 그리고 덧붙셨다. "그래도 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틈틈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했으면 해요."

교수님은 이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허약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허약하지 않은 사람. 나는 허약하지 않은 사람인가? 수업 전 학생들에게 가볍게 건넨 말씀은 내게 큰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부끄럽게도, 사실 나는 매우 허약해져 있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며 나의 미루는 습관은 더욱 심해졌다. 시험 기간이 돼서야 부랴부랴 밀린 녹화 강의를 듣기 일쑤였고, 출석 체크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공부를 미룸으로써 생겨난 시간에는 주로 침대에 누워 SNS에 접속했다. 학교에 다닐 때보다 나를 통제하는 상황이 줄어들었기에, '급한 일'이 아니면 일을 최대한 미뤘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생각'하는 것도 미루게 된다는 점이었다.

평소의 나는, 주어진 텍스트 너머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즐거웠다. 때문에 소설 한 편을 읽은 뒤에는 꼭 비평문이나 해설을 찾

아 읽었다. 미디어 매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영화를 관람한 뒤에는 개인의 생각이나 해석을 작성한 여러 블로그 글을 읽으며 타인과 생각을 교류하곤 했다.

그러나 미루는 습관이 심해지며 나의 즐거움은 예전만큼 깊게 이어지지 못했다. 단순한 '감상'에만 머물렀을 뿐, '분석'하고 '사유'하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 기간에 들어서며 학보가 잠시 휴간했을 때 특히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잠시 쉬어간다는 명분으로 깊은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단순하고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며칠 전 하반기 발행이 시작되고, 편집국에 있던 동기 기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들의 대화는 가벼운 주제에서 시작해 학교 사안, 그리고 얼마 전에 본 뉴스로까지 퍼져나간다. 그날의 주제는 얼마 뒤 있을 총장선거였다. 이후 서로가 취재하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을 꺼냈고, 이렇게 취재한 기사를 독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방법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한마디씩 말을 엮다 보니 분위기는 진지해졌고, 가볍게 시작한 대화지만 풍부한 논의가 오고갔다.

그들과 대화하다 불현듯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학보를 쉬었던 동안의 내 모습과, 하반기 발행을 시작한 내 모습에는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사회 문제(비록 학내 사안이지만)에 내 목소리를 작지만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것.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나만의 약속은 학보 기자로서의 작은 다짐도 되지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나와 의 약속이라고도 느낀다. 허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도와준 데에는 학보사 활동이 한몫을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준 동기 기자들에게는 고마움을, 허약했던 과거의 내게는 반성의 눈길을,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나와 함께 깊이 사유하게 될 독자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마친다.

■ from 편집국

여러분의 양방향 창구가 되겠습니다



이수연 편집국장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청량한 가을의 느낌도 잠시,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이른 겨울 준비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독자 여러분께 한 가

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대학보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내 공식 언론, 이화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 등 아마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통 창구'로서의 이대학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뤄내기란 쉽지 않죠. 그는 학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내 구성원들 간 소통 문제는 때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학내 여러 부처까지.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오류로 서로의 의견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일쑤죠.

서로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그를 잘 받

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대학보는 독자 여러분의 '양방향 창구'가 되고자 합니다. 학내 문제에 항상 귀 기울이며 막히는 일이 생기면 학보가 앞장서서 소통으로 이끌겠습니다. 구성원 간 쌓인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에 학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소문으로 와전된 이야기들,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입장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학보의 역할이니까요.

남은 하반기에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이대학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내 변화했으면 하는 사안이 있다면, 풀고자 하는 오해가 있다면, 편히 학보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여론광장

우리 솔직해지자

곽주영 국문-19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던 시절부터, 나는 솔직한 것을 싫어했다.

솔직함은 날카롭게 다가왔고, 그것이 쥐고 있는 현실 혹은 진실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걸 알아도 애써 부정하며 나 좋을 대로 생각했다. 그러다 누군가가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로 포문을 열 때 나는 긴장했다. '(이제서야) 솔직히 말해보겠다'라는 표현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당신의 도덕적 부채감은 털어주지, 내뱉어진 말들은 여전히 아프지만 했다. 어쩌면 관용 혹은 이해를 갈취하는 그 말 때문에 더 아팠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솔직함'에 약쟁하고 기피하며 내 마음을 보호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욱 쇠약해져 갔다.

솔직한 것을 듣기 싫어하며 좋은 것만 골라 듣고 믿다 보니, 내가 하는 말들도 그렇게 돼 갔다. 투명하고 진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꾸밈은 것들이 가득했다. 언제나 '둘러 말하기' 화법에 골몰해 있던 내가 언택트(untact)로 팀플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됐다.

온전히 텍스트로만 이뤄진 소통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리된 텍스트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오해 없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듯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타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각해야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보낸 텍스트에는 그의 목소리와 그 순간의 톤, 어조, 짓는 표정과 대화 사이사이의 숨 소리 같은 것들이 누락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절실했다.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무엇이 제거된 채 진행되는 텍스트 소통은 한 층 더 발달된 '둘러 말하기 전략'을 낳았다.

둘러 말하는 것과, 둘러 말해진 말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피로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될 요청 사항을 앞뒤로 궁금하지 않은 상대방의 안부와, 궁금해하지 않을 나의 사연들을 붙여가며 핵심을 공공 보호했다. 한 가지의 핵심이 갖가지의 미사여구로 둘러싸여 갔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본질이 훼손되듯이, 과잉보호는 지키고자 했던 핵심을 오히려 부렸다. 그저 넘치는 활자들에 진이 빠질 뿐이었다.

게다가 둘러 말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부드럽게 요구하기 위해 '둘러 말하기'를 선택했는데, 종래에

는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였는지 잊어버렸다. 소통하는 말들을 꾸미면 꾸밀수록 원래의 제 모습과 기능을 상실해 갔다.

그래서 솔직함을 다시 바라봤다. 나의 의견과 나 자신을 포장하고 보호해주던 말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솔직해지자." 5줄로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을 2줄로 줄이고 추측과 감정을 제했다. 이리저리 피하며 이야기하다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과 같은 이기심을 저지르지 않았다. 간결하게 핵심만을 말하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 필요한 배려, 나와 모두를 위한 보살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솔직함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 솔직함이 싫어 둘러 말했는데, 결국 솔직함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다.

딱딱한 종결어와 단호해 보이는 온점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이전 툴툴한 종결어와 쿨한 온점을 믿는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들과, 끝없이 늘어지는 반점들 없이 전송한다. 이미 날아가 버린 글자들을 보며 부디 내 의도를 오해하지 않길, 내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다. 정 없이 용건만 전달해도 나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짧은 문장 안에 더 긴 고민의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것을.

■ Z의 시선

아직도 '노오력' 부족인가요?

오유경 중문-18

눈 깜짝할 새 3학년이 됐다. 1학년 때부터 해온 진로 고민이 당면 문제가 된 이상 이제는 유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주위 어른들은 "이제 곧 졸업이네, 졸업하면 뭐 할 거니?"라며 안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폭풍우 속으로 밀어 넣는다. 최근, 진로에 대해 다양한 세대 어른들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Z세대인 나는 또 폭풍우의 중심 속으로 내던져졌다.

한국 사회 전반의 고용 위축, 청년 취업난과 더불어 고시나 공시 선발 인원 또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Z세대 청년들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최소 몇 년씩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 '영영 캥거루족으로 살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

혼자만의 생각과 고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관심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X세대 어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그들은 "네 나이에 못 할 게 뭐가 있냐?"라는 예상

치 못한 답변을 했다. 분명 일리 있는 말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하는 일침이다. 그런데 말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증대된, '조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Z세대인 우리가 실제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 않은가? 전 세계적으로 변화한 시대적 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이토록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절약적 기술의 등장, 고령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이 고용 불안정을 낳고 있다.

한국 사회에 초점을 맞춰 보면, 고등교육 보편화, 학교 교육 팽창 등의 이유로 학력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학력을 통해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휴학해 '스펙'을 쌓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를 X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은 학벌 이상의 무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학점은 물론, 각종 자격증, 어학 성적, 인턴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을 차별화하고 상품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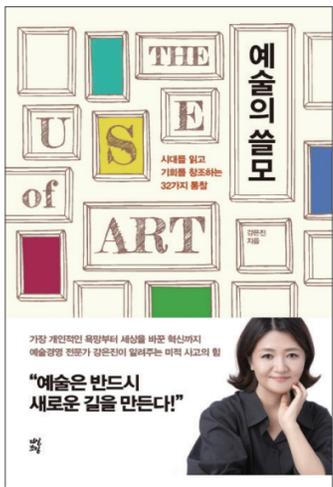
또한 우리 세대에는 부모 세대의 부와 가난

의 대물림이 더욱 심해져 사회 계층 상승의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졌다. 몇 년 전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등장하며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를 두고 부모 탓을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 냉혹한 현실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해야만 한다.

몇몇 기성세대 어른들이 종종 Z세대를 향해 '헛그리 정신'이 없고 게으르며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지탄을 할 때, 기성세대와 우리 Z세대의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개인이 노동하지 않는 것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청년 집단의 불성실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학자 라이트 밀스가 말했듯 개인이 여러 특수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은 구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많은 개인적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Z세대는 누구보다 '노오력'하고, '노오력'하고 있다. 더이상 우리 세대의 삶이 타자에 의해 '노오력' 부족으로 폄하되지 않길 바란다.

■ 금주의 책



예술의 쓸모: 시대를 읽고 기회를 창조하는 32가지 통찰
강은진 지음 / 다산초당 / 2020

이 책에는 예술이 평범한 일상에 온전히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윤희유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 컬렉터, 후원자 등 예술가 40인의 삶에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얹어 쉽고 편안한 문체로 예술과 쓸모를 연결 짓습니다.

예술에서 현실의 쓸모를 찾는 일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좇는 여정에서 무뎠던 감각들이 깨어나고 현실의 문제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술의 쓸모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인간이 가진 욕망의 총체이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모든 감각을 열고 당면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결음을 뚫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 속 저자의 말처럼 마음에 담은 사진이나 그림 한 장만으로도 순식간에 고립된 일상을 벗어나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이화인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울금주의책/
3층일반 700.2강78예